



미국프로야구(MLB) 미네소타 트윈스의 새내기 박병호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홈경기에서 비거리 130m의 홈런을 터뜨려 빅리그 첫 달에만 6개의 홈런을 쏘아올렸다. 사진은 박병호가 4회에 솔로 홈런을 친 후 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미네소타는 아쉽게도 1-4로 패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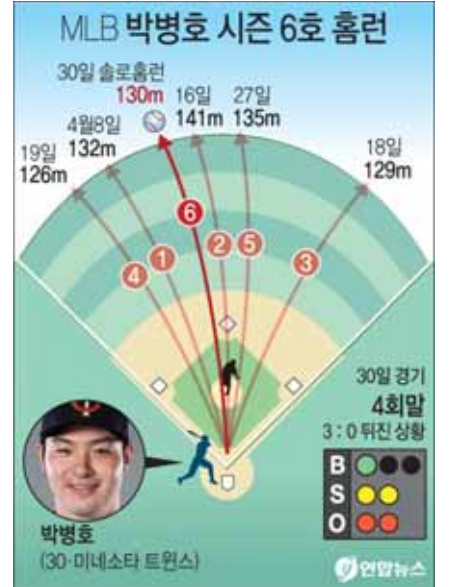
## 6호포 박병호 “타점 늘리겠다”

팀내 홈런 1위...김현수 선발 출전 3안타

메이저리그 입성 첫 달인 4월 6홈런을 채내며 미네소타 트윈스 중심 타자 입지를 굳힌 박병호(30)가 ‘더 많은 타점’을 목표로 내세웠다. 박병호는 팀 내 홈런 1위를 기록하며 장타력을 인정받았지만, 득점권에서는 15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박병호는 ‘약점’을 먼저 떠올렸다. 박병호는 1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타깃필드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서 4회 조던 지머먼의 시속 140km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담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현지시간으로 4월의 마지막 날 기록한 정규시즌 6번째 홈런이었다. 경기 뒤 그는 “메이저리그 첫 달에 홈런 몇 개를 친 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팀의 승리다. 다음 달과 남은 시즌에는 더 많은 타점을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미네소타는 이날도 1-4로 패하며 7승 17패로 아메리칸리그에서 유일하게 2할대 승률(0.292)을 기록했다. 팀의 패배가 이어지니, 박병호도 맘껏 웃을 수 없었다. 득점권에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한 것도 박병호를 침울하게 했다. 하지만 미네소타는 박병호의 장타력에 희망을 걸고 있다. 박병호도 점점 안정감을 찾고 있다. 그는 “스프링캠프 때 ‘타석에 많이 서면 더 안정된 타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막상 정규시즌에서 100%의 힘으로 공을 던지는 투수와 상대해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털어놓으면서도 “하지만 타석에서 점점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안정감을 찾는 박병호”는 미국에서도 주목하는 굉장한 비거리를 자랑한다. 1일에도 홈런이 없었다면 팀은 완봉패를 당할 뻔했다. MLB닷컴도 이날 경기 소식을 전하며 미네소타 선수 중에서는 박병호만 조명했다.



MLB닷컴은 “박병호가 벌써 6번째 홈런을 치며 이 부문 팀 내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시즌 지머먼이 내준 첫 홈런이기도 하다”며 “박병호는 최고 시속 180km의 타구 속도로 133m짜리 대형 홈런을 쳤다”고 전했다.

모두 박병호의 괴력에 놀라고 있지만, 정작 본인도 답답하다. 박병호는 “지머먼은 제구가 정말 좋은 투수다. 몰리는 공이 거의 없었다”며 “그런데 단 한 개 실투가 왔고 그걸 쳐 홈런을 만들었다.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한국 무대에서도 박병호가 홈런 소감을 밝힐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상대 실투’와 ‘운’이었다. 홈런을 내준 투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자신을 낮추려는 의도였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뒤에도 박병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한편 볼티모어 김현수는 이날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오리올 파크 옛 캠프 야드에서 벌어진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홈경기에서 9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메이저리그 데뷔 첫 2루타를 포함해 4타수 3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 ‘4월 마이너스’ KIA 5월엔 ‘플러스’ 될까



“마이너스 4로 정산했습니다.” 5월을 맞는 KIA 김기태 감독의 표정은 밝지 못했다. 김 감독은 1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앞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4월 잘했어야 했는데 마이너스 4로 정산했다. 4월 1라운드도 완패였다”고 말했다.

KIA는 지난 4월 한 달 9승13패를 기록했다. 6승17패로 4월을 마감한 최하위 한화에 이어 9위의 성적이다. 4월 성적만으로는 공동 7위 삼성·넥센과는 1경기 차.

단순 공격 지표로 보면 개막 첫 달 타격이 나쁘지는 않았다. KIA는 0.273의 팀타율로 롯데(0.293), 두산(0.285), 넥센(0.274)에 이어 삼성과 공동 4위의 성적을 냈다. 4차례 손맛을 본 이범호·김주형을 앞세워 홈런도 22개를 기록했다. 경기당 평균 1개

팀타율 0.273 전체 4위  
경기당 홈런 1개 2위  
평균자책점 4.27 ‘5위’  
투·타 잇박자 9승13패

한기주 3연승 부활투  
클린업 트리오 활약 위안

의 홈런포를 터트리면서 경기당 평균 1.18개의 홈런을 날린 LG에 이어 2위다. 그러나 극과 극의 타격에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의 4월이었다. 지난달 23·24일 아직 원정 두 경기에서 27점을 뽑아냈던 타자들은 하루 휴식 후 치른 최하위 한화와 두 경기에서는 4점을 만드는 데 그쳤다. 양현종과 핵터를 내세우고도 총격의 2연패를 당했던 KIA는 돌아온 한기주와 4연승 질주의 보우덴이 만난 지난 29일 홈경

기에서는 예상을 뒤엎는 4-1 승을 만들었다. 전날 끝내기 패와 끝내기 승으로 희비가 엇갈렸던 만큼, 그래서 더 두산의 우위가 짐작됐던 경기였다.

팀 평균자책점은 4.27로 5위의 성적이다. 고정 마무리 없이 시즌을 시작했지만 가장 적은 22경기를 치른 KIA는 가장 많은 8개의 세이브를 기록하기도 했다.

마운드의 힘으로 부족했던 활력을 채웠던 KIA는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2세이브로 출발했던 광철철의 혈행 장애를 시작으로 5선발 임준혁(왼쪽 종아리 부분 파열), 삼동섭(허리), 김윤동(좌측 옆구리 근육 미세 파열)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다. 실상가상 부상 공백으로 1군에 호출됐던 한승혁이 등록 3일 만인 지난 30일 왼쪽 엄지 손가락 골절상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웨이트 훈련 도중 입은 부상이라 KIA에는 더 아쉬운 부상이 됐다.

주축 선수들의 대거 이탈 속에서 한기주가 세이브를 시작으로 3연승을 달리며 4월 마운드의 MVP가 되어주었다. 부상 대란으로 기회를 얻은 좌완 임기준과 정용운이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홍건희의 작구에도 힘이 붙은 게 그나마 위안이다.

지난 시즌에 비하면 클린업트리오도 목직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 필이 4월 한 달 0.351의 타율로 3홈런 12타점을 만들었고, 이범호도 오심으로 홈런 하나를 뺏겼지만 4홈런, 타율 0.305, 14타점을 기록했다. 지독한 부진으로 지난해 뜨거운 이름이 됐던 나지완도 0.333의 타율을 찍었다. 볼타던 김주형의 기세가 꺾인 게 아쉽지만 돌아온 서동욱 등으로 한방 있는 타수를 갖추면서 5월 반동의 불씨를 살려두었다. 타이거즈 사이클링 히트 첫 주인공이 된 김주찬도 공격의 힘.

공·수에서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4로 마감한 4월, KIA는 5월 분위기 반전을 위해 엔트리 교체 카드를 사용했다. 백용환·박찬호·김원섭·김다원을 대신해 이흥규, 고영우, 윤정우·오준혁을 1군으로 불러들였다.

풀릴 듯 말 듯 풀리지 않던 KIA가 적자 4월을 뒤로하고 반전의 5월을 만들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기자 wool@

## 고진영 10개월만에 우승...KLPGA 5승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3승을 올린 고진영(21·넥스)이 10개월만에 통산 5승째를 신고했다.

고진영은 1일 경기도 용인 씨네포인트 골프장(파72·6천429야드)에서 열린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바다만 3개를 낚으며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15언더파 201타를 적어낸 고진영은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김민선(21·CJ오쇼핑)의 막판 추격을 뿌리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번 시즌 첫 승을 거둔 고진영은 지난해 7월 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이후 10개월만에 통산 5승째를 기록했다.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메이저대회 브리티시 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고진영은 올해 톱 10에 한 차례밖에 오르지 못하는 등 부진했다.

특히, 올해 초반 다리에 화상을 입는가 하면 장염에 걸려 근육을 치렀으나 이날 우승으로 완벽히 부활하며 앞으로의 대활약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시즌 개막전 등 이번 시즌 출전한 3개 대회를 모두 우승하며 승률 100%를 기록한 박성현(23·넥스)은 공동 19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 홈런 빼앗긴 이범호 “299홈런서 은퇴하면 억울할 것”

덕아웃 T 특특

▲홈런타자! = 한국 생활 3년차의 필에게 라인업에 있는 이름 읽기는 식은 죽 먹기가 됐다. 기본적인 인사말은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필. 1일 훈련 시간에는 윤완주를 보고 “홈런타자!”라며 웃음을 지었다. 윤완주는 지난 30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9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장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석에서 두산 좌완 장원준의 144km 직구를 공략해 좌측 담장 넘어가는 홈런을 만들었다. 자신의 시즌 1호, 통산 2호 홈런이었다.

▲다시 뺏겼어요 = 잊을 수 없는 생일을 보낸 한기주였다. 한기주는 자신의 생

일날이었던 지난 29일 두산전 선발로 나와 5.2이닝 5피안타 5사사구 1탈삼진 1실점의 피침을 하며 4-1 경기의 승리투수가 됐다.

한기주는 이날 승리로 1462일 만의 승리, 1668일 만의 승리투수에 이어 3610일 만의 홈선발승까지 3연승에 성공했다. 경기가 끝난 뒤 관람석의 팬들은 수훈선수 인터뷰를 하는 한기주를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후배 양현종도 케이크를 들고 한기주 앞으로 향했다. 한기주의 생일을 특별하게 축하해준 또 한 사람, 핵터가 있었다. 방송 인터뷰를 하고 있던 한기주에게 다가간 핵터는 한기주의 손목에 팔찌를 얹은 뒤 얼굴에 케이크를 묻히고 라커룸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한기주는 이내 선물 받은 팔찌를 내어주어야 했다. 한기

주는 “핵터가 주고 간 팔찌가 알고 보니 박흥식 코치님 팔찌였다. 다시 뺏겼다”고 웃었다.

▲그냥 노리고 있었어요 = 두산과의 주말 시리즈에서 김호령도 특별한 생일을 보냈다. 생일이던 지난 30일 1군에 재등록된 김호령은 복귀 첫 경기에서 2번 타자 겸 중견수로 나선 김호령은 두 번째 타석에서 2루타를 신고한 뒤 3연승 안타를 때려내며 화려한 복귀전을 치렀다. 경기가 5-7패로 끝나면서 수훈선수 인터뷰를 하지는 못했지만 강렬했던 생일 자축 경기. 김호령은 “조금부터 치려고 한 것은 아니데 그냥 노리고 쳤다. 노린 공이 들어와서 스윙을 했다”며 3안타 경기의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99홈런에서 끝나면 억울할 것 같아요 = “내 복이러냐” 하면서 꽃웃음을 지은 이범호였다. 이범호는 지난 29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3-1로 앞선 5회 2사 1루에서 타석에 섰다. 좌중간으로 멀리 날아간 공에 1루에 있던 필이 홈에 들어오면서 4-1. 타자주자 이범호는 일단 2루까지 내달린 뒤 홈런 판독을 요청했다. 안전망이 설치된 펜스 쪽으로 날아간 공. 그러나 중계 화면을 통해서 합의판정에 나선 심판진은 2루타를 선언했다. 이범호의 홈런이 날아간 순간이었다. 다행히 팀의 승리로 경기가 끝나기는 했지만 이범호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판정이었다. 이범호는 “나중에(은퇴할 때) 299홈런에서 끝나면 억울할 것 같다”면서도 “어쨌든요. 내 복이러냐 해야죠”라고 웃었다. 300홈런을 남은 야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이범호는 4월30일 현재 254홈런을 기록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김경태, 일본 골프 시즌 2승

김경태(30·신한금융그룹)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에서 시즌 두 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김경태는 1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 골프클럽(파70·6천545야드)에서 열린 더 크라운스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3타를 줄여 가타오카 다이스케(일본)와 함께 10언더파 270타로 동타를 이뤘다.

김경태는 연장 첫 번째 홀에서 1.5m 거리의 파퍼트를 성공. 보기를 적어낸 가타오카를 따돌렸다. 우승 상금 2천400만 엔을 보낸 김경태는 시즌 상급 랭킹 1위를 질주했다. 이 대회에서는 2014년 김형성, 2015년



장익제가 정상에 올라 3년 연속 한국 선수가 우승컵을 가져갔다.

2타 뒤진 2위로 4라운드를 시작한 김경태는 전반에 3타를 줄이며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간 뒤 가타오카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 끝에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김경태는 지난달 도켄 홈페이지에서 우승한 뒤 지난주 파나소닉 오픈에서는 공동 2위를 차지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